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

나는 그물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

뒷 뫼에 엄기는 약을 **언제** 캐려 하나니

<제1수>

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(細雨) 중에 호미 메고

산전을 흩매다가 **녹음**에 누웠으니

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**잠든 나**를 깨와다

<제2수>

대추 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

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

술 익자 체 장수 **돌아가니** 아니 먹고 어이리

<제3수>

뫼에는 **새** 다 긏고 들에는 갈 이 없다

외로운 배에 삿갓 쓴 **저 늙은이**

**낚대**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

<제4수>

- 황희, 『사시가』 -

(나)

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

하루 쬔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

**은침**을 빼내어 **오색실** 꿰어 놓고

**임의 터진 옷**을 깁고자 하건마는

㉠ 천문구중(天門九重)에 갈 길이 아득하니

**아녀자** 깊은 정을 임이 **언제** 살피실꼬

㉡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

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**돌아오니**

만호천문(萬戶千門)이 차례로 연다 하되

자물쇠를 굳게 잠가 **동방(洞房)**을 닫았으니

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

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

㉢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

천 줄기 원루(怨淚)는 피 되어 솟아나고

반벽청등(半壁靑燈)은 빛조차 어두워라

황금이 많으면 매부(買賦)나 하련마는

㉣ 백일(白日)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

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

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

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

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

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

㉤ 은쟁(銀箏)을 꺼내어 원곡(怨曲)을 슬피 타니

주현(朱絃)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

차라리 죽어서 **자규**의 넋이 되어

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

오경에 잔월(殘月)을 섞어 **임의 잠**을 깨우리라

- 조우인, 『자도사 』 -

(다)

그 집은 **그 집 아이들**에게 작은 우주였다.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.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. **그**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.

석양의 북새, 혹은 **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**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.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**비**가 올 것이므로.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. 똑또르 똑또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.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. 모든 것들이 말이다.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.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.

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.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.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**아파트.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**에 살고 있는 **그의 아이**는 **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**다.

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,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.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.

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.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.

그 집, 노란 그 집에 **탄생과 죽음**이 있었다.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.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.

**우리들**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.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.

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.

- 공선옥,『그 시절 우리들의 집』 -